

전남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역량 집중한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외국인 정책 선도 등 최적지 주장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될 것

전남도가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전남 유치를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가장 높고, 관련 정책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동북아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 거점 항공인 광양항 등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

난 7월 법무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전남도는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 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또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

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도도 궤를 같이한다고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

산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었다. 또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삼박람회와 제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올해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 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간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시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찬성...86% 집단휴업 안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설문 필수진료과 의사부족 개선 '93%' 증원폭 1000명 이상 47.4% 응답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의대증원에 찬성하며 의사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

사 전문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한 달여 사이 6.6%포인트 증가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100~1000명"이

라는 답변은 32.7%였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폭을 2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32.4%나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날까지 파업(집단 진료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71.9%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서도 SW 제품 공인시험 성적서 발급

공인 소프트웨어 시험소 개소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CGI센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소프트웨어 시험소 개소식'을 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반법과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능력을 국제 공인하는 제도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술

이전, 시험환경 구축 등 절차를 밟아 지난 10월 소프트웨어 분야 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시험소가 문을 열면서 그동안 공인시험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지역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국제표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야 인정시험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운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광주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민간공항 2025년 무안 이전

▶1면에서 계속

양 사도가 지난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당시 강조했던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 민간-군 공항의 이전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 사도 지사는 지난 5월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별도 논의'키로 한 이후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했다는 건 긍정적 진전이라는 것이 광주시측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또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문구의 경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해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이 어렵다"고 했다. 양 사도가 상황 진행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광주 민간 공항이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양 사도가 적극 소통하고 설득한다'고 명시하면서 '무안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양 사도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모적 논쟁을 불러온 합평으로의 궁극적 이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무안공항으로의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5차 ") 등 국가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감안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확정됐음에도, 광주시가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공항 이전을 마무리 무안공항 활성화를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합의문에 담지 않은 여러 사항을 협의해 주겠다' 때문에 KTX 2단계 개통에 맞춰 공동회의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절체 절명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양 사도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태양광발전사업허가상선에 따른 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0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에 대한 태안군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 발전사업의 명칭**
가) 사립발전사업(태안군:태안1호, 태안2호, 태안3호, 태안4호, 태안5호, 태안6호, 태안7호, 태안8호, 태안9호, 태안10호, 태안11호, 태안12호, 태안13호, 태안14호, 태안15호, 태안16호, 태안17호, 태안18호, 태안19호, 태안20호, 태안21호, 태안22호, 태안23호, 태안24호, 태안25호, 태안26호, 태안27호, 태안28호, 태안29호, 태안30호, 태안31호, 태안32호, 태안33호, 태안34호, 태안35호, 태안36호, 태안37호, 태안38호, 태안39호, 태안40호, 태안41호, 태안42호, 태안43호, 태안44호, 태안45호, 태안46호, 태안47호, 태안48호, 태안49호, 태안50호, 태안51호, 태안52호, 태안53호, 태안54호, 태안55호, 태안56호, 태안57호, 태안58호, 태안59호, 태안60호, 태안61호, 태안62호, 태안63호, 태안64호, 태안65호, 태안66호, 태안67호, 태안68호, 태안69호, 태안70호, 태안71호, 태안72호, 태안73호, 태안74호, 태안75호, 태안76호, 태안77호, 태안78호, 태안79호, 태안80호, 태안81호, 태안82호, 태안83호, 태안84호, 태안85호, 태안86호, 태안87호, 태안88호, 태안89호, 태안90호, 태안91호, 태안92호, 태안93호, 태안94호, 태안95호, 태안96호, 태안97호, 태안98호, 태안99호, 태안100호, 태안101호, 태안102호, 태안103호, 태안104호, 태안105호, 태안106호, 태안107호, 태안108호, 태안109호, 태안110호, 태안111호, 태안112호, 태안113호, 태안114호, 태안115호, 태안116호, 태안117호, 태안118호, 태안119호, 태안120호, 태안121호, 태안122호, 태안123호, 태안124호, 태안125호, 태안126호, 태안127호, 태안128호, 태안129호, 태안130호, 태안131호, 태안132호, 태안133호, 태안134호, 태안135호, 태안136호, 태안137호, 태안138호, 태안139호, 태안140호, 태안141호, 태안142호, 태안143호, 태안144호, 태안145호, 태안146호, 태안147호, 태안148호, 태안149호, 태안150호, 태안151호, 태안152호, 태안153호, 태안154호, 태안155호, 태안156호, 태안157호, 태안158호, 태안159호, 태안160호, 태안161호, 태안162호, 태안163호, 태안164호, 태안165호, 태안166호, 태안167호, 태안168호, 태안169호, 태안170호, 태안171호, 태안172호, 태안173호, 태안174호, 태안175호, 태안176호, 태안177호, 태안178호, 태안179호, 태안180호, 태안181호, 태안182호, 태안183호, 태안184호, 태안185호, 태안186호, 태안187호, 태안188호, 태안189호, 태안190호, 태안191호, 태안192호, 태안193호, 태안194호, 태안195호, 태안196호, 태안197호, 태안198호, 태안199호, 태안200호, 태안201호, 태안202호, 태안203호, 태안204호, 태안205호, 태안206호, 태안207호, 태안208호, 태안209호, 태안210호, 태안211호, 태안212호, 태안213호, 태안214호, 태안215호, 태안216호, 태안217호, 태안218호, 태안219호, 태안220호, 태안221호, 태안222호, 태안223호, 태안224호, 태안225호, 태안226호, 태안227호, 태안228호, 태안229호, 태안230호, 태안231호, 태안232호, 태안233호, 태안234호, 태안235호, 태안236호, 태안237호, 태안238호, 태안239호, 태안240호, 태안241호, 태안242호, 태안243호, 태안244호, 태안245호, 태안246호, 태안247호, 태안248호, 태안249호, 태안250호, 태안251호, 태안252호, 태안253호, 태안254호, 태안255호, 태안256호, 태안257호, 태안258호, 태안259호, 태안260호, 태안261호, 태안262호, 태안263호, 태안264호, 태안265호, 태안266호, 태안267호, 태안268호, 태안269호, 태안270호, 태안271호, 태안272호, 태안273호, 태안274호, 태안275호, 태안276호, 태안277호, 태안278호, 태안279호, 태안280호, 태안281호, 태안282호, 태안283호, 태안284호, 태안285호, 태안286호, 태안287호, 태안288호, 태안289호, 태안290호, 태안291호, 태안292호, 태안293호, 태안294호, 태안295호, 태안296호, 태안297호, 태안298호, 태안299호, 태안300호, 태안301호, 태안302호, 태안303호, 태안304호, 태안305호, 태안306호, 태안307호, 태안308호, 태안309호, 태안310호, 태안311호, 태안312호, 태안313호, 태안314호, 태안315호, 태안316호, 태안317호, 태안318호, 태안319호, 태안320호, 태안321호, 태안322호, 태안323호, 태안324호, 태안325호, 태안326호, 태안327호, 태안328호, 태안329호, 태안330호, 태안331호, 태안332호, 태안333호, 태안334호, 태안335호, 태안336호, 태안337호, 태안338호, 태안339호, 태안340호, 태안341호, 태안342호, 태안343호, 태안344호, 태안345호, 태안346호, 태안347호, 태안348호, 태안349호, 태안350호, 태안351호, 태안352호, 태안353호, 태안354호, 태안355호, 태안356호, 태안357호, 태안358호, 태안359호, 태안360호, 태안361호, 태안362호, 태안363호, 태안364호, 태안365호, 태안366호, 태안367호, 태안368호, 태안369호, 태안370호, 태안371호, 태안372호, 태안373호, 태안374호, 태안375호, 태안376호, 태안377호, 태안378호, 태안379호, 태안380호, 태안381호, 태안382호, 태안383호, 태안384호, 태안385호, 태안386호, 태안387호, 태안388호, 태안389호, 태안390호, 태안391호, 태안392호, 태안393호, 태안394호, 태안395호, 태안396호, 태안397호, 태안398호, 태안399호, 태안400호, 태안401호, 태안402호, 태안403호, 태안404호, 태안405호, 태안406호, 태안407호, 태안408호, 태안409호, 태안410호, 태안411호, 태안412호, 태안413호, 태안414호, 태안415호, 태안416호, 태안417호, 태안418호, 태안419호, 태안420호, 태안421호, 태안422호, 태안423호, 태안424호, 태안425호, 태안426호, 태안427호, 태안428호, 태안429호, 태안430호, 태안431호, 태안432호, 태안433호, 태안434호, 태안435호, 태안436호, 태안437호, 태안438호, 태안439호, 태안440호, 태안441호, 태안442호, 태안443호, 태안444호, 태안445호, 태안446호, 태안447호, 태안448호, 태안449호, 태안450호, 태안451호, 태안452호, 태안453호, 태안454호, 태안455호, 태안456호, 태안457호, 태안458호, 태안459호, 태안460호, 태안461호, 태안462호, 태안463호, 태안464호, 태안465호, 태안466호, 태안467호, 태안468호, 태안469호, 태안470호, 태안471호, 태안472호, 태안473호, 태안474호, 태안475호, 태안476호, 태안477호, 태안478호, 태안479호, 태안480호, 태안481호, 태안482호, 태안483호, 태안484호, 태안485호, 태안486호, 태안487호, 태안488호, 태안489호, 태안490호, 태안491호, 태안492호, 태안493호, 태안494호, 태안495호, 태안496호, 태안497호, 태안498호, 태안499호, 태안500호, 태안501호, 태안502호, 태안503호, 태안504호, 태안505호, 태안506호, 태안507호, 태안508호, 태안509호, 태안510호, 태안511호, 태안512호, 태안513호, 태안514호, 태안515호, 태안516호, 태안517호, 태안518호, 태안519호, 태안520호, 태안521호, 태안522호, 태안523호, 태안524호, 태안525호, 태안526호, 태안527호, 태안528호, 태안529호, 태안530호, 태안531호, 태안532호, 태안533호, 태안534호, 태안535호, 태안536호, 태안537호, 태안538호, 태안539호, 태안540호, 태안541호, 태안542호, 태안543호, 태안544호, 태안545호, 태안546호, 태안547호, 태안548호, 태안549호, 태안550호, 태안551호, 태안552호, 태안553호, 태안554호, 태안555호, 태안556호, 태안557호, 태안558호, 태안559호, 태안560호, 태안561호, 태안562호, 태안563호, 태안564호, 태안565호, 태안566호, 태안567호, 태안568호, 태안569호, 태안570호, 태안571호, 태안572호, 태안573호, 태안574호, 태안575호, 태안576호, 태안577호, 태안578호, 태안579호, 태안580호, 태안581호, 태안582호, 태안583호, 태안584호, 태안585호, 태안586호, 태안587호, 태안588호, 태안589호, 태안590호, 태안591호, 태안592호, 태안593호, 태안594호, 태안595호, 태안596호, 태안597호, 태안598호, 태안599호, 태안600호, 태안601호, 태안602호, 태안603호, 태안604호, 태안605호, 태안606호, 태안607호, 태안608호, 태안609호, 태안610호, 태안611호, 태안612호, 태안613호, 태안614호, 태안615호, 태안616호, 태안617호, 태안618호, 태안619호, 태안620호, 태안621호, 태안622호, 태안623호, 태안624호, 태안625호, 태안626호, 태안627호, 태안628호, 태안629호, 태안630호, 태안631호, 태안632호, 태안633호, 태안634호, 태안635호, 태안636호, 태안637호, 태안638호, 태안639호, 태안640호, 태안641호, 태안642호, 태안643호, 태안644호, 태안645호, 태안646호, 태안647호, 태안648호, 태안649호, 태안650호, 태안651호, 태안652호, 태안653호, 태안654호, 태안655호, 태안656호, 태안657호, 태안658호, 태안659호, 태안660호, 태안661호, 태안662호, 태안663호, 태안664호, 태안665호, 태안666호, 태안667호, 태안668호, 태안669호, 태안670호, 태안671호, 태안672호, 태안673호, 태안674호, 태안675호, 태안676호, 태안677호, 태안678호, 태안679호, 태안680호, 태안681호, 태안682호, 태안683호, 태안684호, 태안685호, 태안686호, 태안687호, 태안688호, 태안689호, 태안690호, 태안691호, 태안692호, 태안693호, 태안694호, 태안695호, 태안696호, 태안697호, 태안698호, 태안699호, 태안700호, 태안701호, 태안702호, 태안703호, 태안704호, 태안705호, 태안706호, 태안707호, 태안708호, 태안709호, 태안710호, 태안711호, 태안712호, 태안713호, 태안714호, 태안715호, 태안716호, 태안717호, 태안718호, 태안719호, 태안720호, 태안721호, 태안722호, 태안723호, 태안724호, 태안725호, 태안726호, 태안727호, 태안728호, 태안729호, 태안730호, 태안731호, 태안732호, 태안733호, 태안734호, 태안735호, 태안736호, 태안737호, 태안738호, 태안739호, 태안740호, 태안741호, 태안742호, 태안743호, 태안744호, 태안745호, 태안746호, 태안747호, 태안748호, 태안749호, 태안750호, 태안751호, 태안752호, 태안753호, 태안754호, 태안755호, 태안756호, 태안757호, 태안758호, 태안759호, 태안760호, 태안761호, 태안762호, 태안763호, 태안764호, 태안765호, 태안766호, 태안767호, 태안768호, 태안769호, 태안770호, 태안771호, 태안772호, 태안773호, 태안774호, 태안775호, 태안776호, 태안777호, 태안778호, 태안779호, 태안780호, 태안781호, 태안782호, 태안783호, 태안784호, 태안785호, 태안786호, 태안787호, 태안788호, 태안789호, 태안790호, 태안791호, 태안792호, 태안793호, 태안794호, 태안795호, 태안796호, 태안797호, 태안798호, 태안799호, 태안800호, 태안801호, 태안802호, 태안803호, 태안804호, 태안805호, 태안806호, 태안807호, 태안808호, 태안809호, 태안810호, 태안811호, 태안812호, 태안813호, 태안814호, 태안815호, 태안816호, 태안817호, 태안818호, 태안819호, 태안820호, 태안821호, 태안822호, 태안823호, 태안824호, 태안825호, 태안826호, 태안827호, 태안828호, 태안829호, 태안830호, 태안831호, 태안832호, 태안833호, 태안834호, 태안835호, 태안836호, 태안837호, 태안838호, 태안839호, 태안840호, 태안841호, 태안842호, 태안843호, 태안844호, 태안845호, 태안846호, 태안847호, 태안848호, 태안849호, 태안850호, 태안851호, 태안852호, 태안853호, 태안854호, 태안855호, 태안856호, 태안857호, 태안858호, 태안859호, 태안860호, 태안861호, 태안862호, 태안863호, 태안864호, 태안865호, 태안866호, 태안867호, 태안868호, 태안869호, 태안870호, 태안871호, 태안872호, 태안873호, 태안874호, 태안875호, 태안876호, 태안877호, 태안878호, 태안879호, 태안880호, 태안881호, 태안882호, 태안883호, 태안884호, 태안885호, 태안886호, 태안887호, 태안888호, 태안889호, 태안890호, 태안891호, 태안892호, 태안893호, 태안894호, 태안895호, 태안896호, 태안897호, 태안898호, 태안899호, 태안900호, 태안901호, 태안902호, 태안903호, 태안904호, 태안905호, 태안906호, 태안907호, 태안908호, 태안909호, 태안910호, 태안911호, 태안912호, 태안913호, 태안914호, 태안915호, 태안916호, 태안917호, 태안918호, 태안919호, 태안920호, 태안921호, 태안922호, 태안923호, 태안924호, 태안925호, 태안926호, 태안927호, 태안928호, 태안929호, 태안930호, 태안931호, 태안932호, 태안933호, 태안934호, 태안935호, 태안936호, 태안937호, 태안938호, 태안939호, 태안940호, 태안941호, 태안942호, 태안943호, 태안944호, 태안945호, 태안946호, 태안947호, 태안948호, 태안949호, 태안950호, 태안951호, 태안952호, 태안953호, 태안954호, 태안955호, 태안956호, 태안957호, 태안958호, 태안959호, 태안960호, 태안961호, 태안962호, 태안963호, 태안964호, 태안965호, 태안966호, 태안967호, 태안968호, 태안969호, 태안970호, 태안971호, 태안972호, 태안973호, 태안974호, 태안975호, 태안976호, 태안977호, 태안978호, 태안979호, 태안980호, 태안981호, 태안982호, 태안983호, 태안984호, 태안985호, 태안986호, 태안987호, 태안988호, 태안989호, 태안990호, 태안991호, 태안992호, 태안993호, 태안994호, 태안995호, 태안996호, 태안997호, 태안998호, 태안999호, 태안1000호, 태안1001호, 태안1002호, 태안1003호, 태안1004호, 태안1005호, 태안1006호, 태안1007호, 태안1008호, 태안1009호, 태안1010호, 태안1011호, 태안1012호, 태안1013호, 태안1014호, 태안1015호, 태안1016호, 태안1017호, 태안1018호, 태안1019호, 태안1020호, 태안1021호, 태안1022호, 태안1023호, 태안1024호, 태안1025호, 태안1026호, 태안1027호, 태안1028호, 태안1029호, 태안1030호, 태안1031호, 태안1032호, 태안1033호, 태안1034호, 태안1035호, 태안1036호, 태안1037호, 태안1038호, 태안1039호, 태안1040호, 태안1041호, 태안1042호, 태안1043호, 태안1044호, 태안1045호, 태안1046호, 태안1047호, 태안1048호, 태안1049호, 태안1050호, 태안1051호, 태안1052호, 태안1053호, 태안1054호, 태안1055호, 태안1056호, 태안1057호, 태안1058호, 태안1059호, 태안1060호, 태안1061호, 태안1062호, 태안1063호, 태안1064호, 태안1065호, 태안1066호, 태안1067호, 태안1068호, 태안1069호, 태안1070호, 태안1071호, 태안1072호, 태안1073호, 태안1074호, 태안1075호, 태안1076호, 태안1077호, 태안1078호, 태안1079호, 태안1080호, 태안1081호, 태안1082호, 태안1083호, 태안1084호, 태안1085호, 태안1086호, 태안1087호, 태안1088호, 태안1089호, 태안1090호, 태안1091호, 태안1092호, 태안1093호, 태안1094호, 태안1095호, 태안1096호, 태안1097호, 태안1098호, 태안1099호, 태안1100호, 태안1101호, 태안1102호, 태안1103호, 태안1104호, 태안1105호, 태안1106호, 태안1107호, 태안1108호, 태안1109호, 태안1110호, 태안1111호, 태안1112호, 태안1113호, 태안1114호, 태안1115호, 태안1116호, 태안1117호, 태안1118호, 태안1119호, 태안1120호, 태안1121호, 태안1122호, 태안1123호, 태안1124호, 태안1125호, 태안1126호, 태안1127호, 태안1128호, 태안1129호, 태안1130호, 태안1131호, 태안1132호, 태안1133호, 태안1134호, 태안1135호, 태안1136호, 태안1137호, 태안1138호, 태안1139호, 태안1140호, 태안1141호, 태안1142호, 태안1143호, 태안1144호, 태안1145호, 태안1146호, 태안1147호, 태안1148호, 태안1149호, 태안1150호, 태안1151호, 태안1152호, 태안1153호, 태안1154호, 태안1155호, 태안1156호, 태안1157호, 태안1158호, 태안1159호, 태안1160호, 태안1161호, 태안1162호, 태안1163호, 태안1164호, 태안1165호, 태안1